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11호 (2016-11)
발행일 2016. 04. 11.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변용찬
복지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2014년 현재 청장년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고,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임. 특히 20대의 실업률이 남녀 모두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감소 추세임. 장애유형별 실업률을 보면, 정신장애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뇌병변장애인이었음.
-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성·연령별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들어가는 말

■ 본고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취업의 주 대상 연령층인 20세부터 59세의 청장년 장애인으로 한정¹⁾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음.

-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경제활동 상태 분석보다 분석단위를 세분하였음. 즉, 여기서는 성 및 연령별, 그리고 성 및 장애유형별로 세분하여 성과 연령, 성과 장애유형이 동시에 고려되도록 하였음.

1) 통상적으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하기 때문에 학령기인 15-19세 인구가 포함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장년 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을 보다 좁게 한정하고자 함.

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가. 경제활동 실태

- 2014년 현재 청장년 장애인 가운데 취업이나 실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56.9%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74.7%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며, 2011년도 57.3%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수준임²⁾.
 - 성별로 보면 남성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6.2%로서 여성의 36.8%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임.
 - 남성 장애인의 경우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74.6%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 장애인의 경우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32.7%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의 연령에서도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 실업률을 보면 여성 청장년 장애인이 9.2%로서 남성의 7.4%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전국 실업률 3.7%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20대의 실업률이 남녀 모두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감소 추세임.
 - 특히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에 있음.
 -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³⁾을 보면, 남성 청장년 장애인의 경우 61.3%로서 5명 중 3명이 취업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33.4%로서 3명 중 1명만이 취업하고 있음.
 -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은 30대에서 높았고, 여성장애인은 40대에서 가장 높았음.

〈표 1〉 청장년(20세~59세) 재가 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취업인구 및 고용률

(단위: %)

구분	전체 인구집단			장애인 인구집단					
	2014년			2011년			2014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계	74.7	3.7	72.0	57.3	7.8	52.8	56.9	7.8	52.4
20 - 29	63.1	9.0	57.4	49.7	13.0	43.2	43.6	22.0	34.0
30 - 39	76.3	3.1	73.9	60.6	11.7	53.5	62.1	11.1	55.2
40 - 49	80.9	2.2	79.1	61.9	7.3	57.4	61.3	7.4	56.8
50 - 59	75.9	2.2	74.2	54.3	6.0	51.0	54.6	5.1	51.8
남자									
계	86.5	3.6	83.4	66.5	8.6	60.8	66.2	7.4	61.3
20 - 29	62.4	10.5	55.8	50.9	15.1	43.2	46.1	16.3	38.6
30 - 39	93.7	2.9	90.9	74.8	13.5	64.7	74.6	11.6	66.0
40 - 49	94.7	2.1	92.7	71.5	7.8	65.9	70.6	6.9	65.8
50 - 59	89.5	2.3	87.5	62.6	6.3	58.7	63.8	5.2	60.5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도 매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나 고용개발원의 「2014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의 경우 모두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오차로 인하여 서로 통계치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

구분	전체 인구집단			장애인 인구집단					
	2014년			2011년			2014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여자									
계	62.8	3.7	60.5	39.1	5.2	37.1	36.8	9.2	33.4
20 - 29	63.8	7.6	59.0	47.1	8.4	43.1	38.5	35.4	24.9
30 - 39	58.4	3.5	56.3	32.8	3.4	31.7	32.7	8.2	30.0
40 - 49	66.7	2.4	65.1	40.6	5.2	38.4	39.8	9.3	36.1
50 - 59	62.3	2.2	60.9	39.1	5.1	37.1	36.1	5.0	34.3

※ 자료: 통계청 KOSIS.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경제활동 상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73.2%이며,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3.9%로서 장애유형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남성 청장년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가 82.0%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가 15.3%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여성 청장년장애인의 경우 청각언어장애가 51.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12.3%로 가장 낮았음.
- 실업률을 보면, 정신장애인이 3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뇌병변장애로 16.3% 수준임.
 - 성별로는 남성 정신장애인의 경우 35.9%로 매우 높았고, 여성의 경우 역시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이 32.5%로 가장 높은 수준임.

〈표 2〉 청장년(20세~59세) 재가 장애인의 성별·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고용률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계	1,156,853	657,732	606,575	51,157	499,121	56.9	7.8	52.4
지체	575,170	421,303	395,222	26,081	153,867	73.2	6.2	68.7
뇌병변	97,180	23,454	19,626	3,828	73,726	24.1	16.3	20.2
시각	108,904	72,758	66,841	5,917	36,146	66.8	8.1	61.4
청각언어	92,203	60,671	56,372	4,299	31,532	65.8	7.1	61.1
지적자폐	128,372	43,077	39,437	3,640	85,295	33.6	8.4	30.7
정신	91,218	12,649	8,285	4,364	78,569	13.9	34.5	9.1
내부	63,807	23,819	20,791	3,028	39,988	37.3	12.7	32.6
남자 계	788,598	522,186	483,451	38,735	266,412	66.2	7.4	61.3
지체	428,844	351,736	329,710	22,026	77,108	82.0	6.3	76.9
뇌병변	67,906	19,150	16,338	2,812	48,756	28.2	14.7	24.1
시각	78,095	57,541	52,908	4,633	20,554	73.7	8.1	67.7
청각언어	48,368	38,082	35,979	2,103	10,286	78.7	5.5	74.4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지적자폐	77,112	29,174	27,688	1,486	47,938	37.8	5.1	35.9
정신	48,171	7,372	4,724	2,648	40,799	15.3	35.9	9.8
내부	40,104	19,132	16,104	3,028	20,972	47.7	15.8	40.2
여자 계	368,255	135,546	123,124	12,422	232,709	36.8	9.2	33.4
지체	146,326	69,567	65,512	4,055	76,759	47.5	5.8	44.8
뇌병변	29,274	4,304	3,288	1,016	24,970	14.7	23.6	11.2
시각	30,809	15,217	13,933	1,284	15,592	49.4	8.4	45.2
청각언어	43,835	22,589	20,393	2,196	21,246	51.5	9.7	46.5
지적자폐	51,260	13,903	11,749	2,154	37,357	27.1	15.5	22.9
정신	43,047	5,277	3,561	1,716	37,770	12.3	32.5	8.3
내부	23,703	4,687	4,687	0	19,016	19.8	0.0	19.8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나. 취업자

■ 취업자의 경우 현재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낮은 수입이었으며, 남성 청장년 장애인의 42.3%, 여성 청장년 장애인의 40.6%가 수입이 낮다고 응답함.

- 실제로 남성 청장년 장애인이 직장에서 버는 소득은 월평균 209만원이었고, 여성의 경우 110만원임.
- 두 번째의 애로사항은 업무과다로서 30대 남성이 22.4%, 50대 여성이 21.4%였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30대 여성에게서 9.4%로 높았음.

〈표 3〉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낮은 수입	42.3	31.4	34.8	43.2	45.5	40.6	40.6	26.3	39.6	44.7
직장내의 대인관계	2.8	2.9	2.8	2.0	3.4	4.3	0.0	2.3	4.4	5.2
승진문제	0.7	2.1	0.7	0.8	0.5	0.5	0.0	0.0	1.7	0.0
업무과다	16.9	9.5	22.4	16.2	16.1	17.1	7.9	17.6	11.3	21.4
직무관련 기능부족	1.8	6.0	2.6	1.6	1.1	1.5	4.2	3.9	1.5	0.7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1.0	2.5	2.3	1.4	0.1	0.9	0.0	0.0	1.6	0.9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0	2.2	0.0	0.1	1.8	1.8	0.0	9.4	0.6	0.8
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	2.1	0.0	1.1	2.4	2.3	1.3	0.0	2.4	1.3	1.2

구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출퇴근 불편	2.5	7.1	2.5	2.8	1.9	2.0	16.6	1.6	1.6	0.8
의사소통의 어려움	2.3	6.9	2.0	1.7	2.3	3.1	16.2	2.6	3.0	1.8
어려움 없음	26.1	29.4	28.6	27.8	23.8	26.0	14.5	34.0	32.2	21.8
기타	0.5	0.0	0.0	0.0	1.1	0.8	0.0	0.0	1.2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83,450	22,184	82,291	151,385	227,590	123,122	7,210	15,935	36,050	63,927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다. 실업자

- 실업 상태에 있는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18.5%, 여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가 19.6%로 높았음.
- 특히 40대 남성 장애인의 경우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35.8%로 높았으며, 40대 여성장애인은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43.1%로 높게 나타났음.
-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24.6%, 여성의 경우 42.5%로 나타남.

〈표 4〉 성·연령별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업무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관리자	5.3	0.0	12.8	2.2	4.2	0.0	0.0	0.0	0.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7	12.6	27.8	7.9	11.6	17.8	17.1	43.0	10.1	16.4
사무 종사자	18.5	22.4	15.3	35.8	2.9	14.5	26.3	29.0	0.0	10.8
서비스 종사자	10.4	21.1	6.6	7.7	12.6	19.6	8.0	0.0	43.1	16.0
판매 종사자	5.9	12.8	5.2	8.0	2.3	3.3	0.0	0.0	11.3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0.0	0.0	3.3	0.0	0.0	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7	9.6	11.3	0.8	10.9	2.4	0.0	0.0	0.0	8.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7	7.2	10.0	8.1	18.1	0.0	0.0	0.0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24.6	14.4	10.9	29.5	34.1	42.5	48.6	28.0	35.5	4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1,961	4,334	10,776	13,318	13,533	12,721	3,952	1,431	3,684	3,654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5〉 장애유형별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업무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체자폐	정신	내부
관리자	4.1	8.2	0.0	0.0	0.0	0.0	0.0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4	15.1	38.0	19.2	11.8	9.2	0.0	18.2
사무 종사자	17.6	8.8	45.9	16.9	21.6	0.0	42.7	26.9
서비스 종사자	12.5	8.0	0.0	28.9	5.1	7.9	26.5	31.3
판매 종사자	5.3	7.1	0.0	7.0	0.0	13.9	0.0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8	1.7	0.0	0.0	0.0	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4	8.8	0.0	0.0	19.3	0.0	0.0	9.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0	12.3	9.6	0.0	10.7	7.8	0.0	11.6
단순노무 종사자	28.8	30.0	6.6	28.0	31.6	61.2	30.9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4,682	27,301	4,617	5,915	4,300	3,974	5,547	3,028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일자리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체장애인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30.0%로 높고, 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서 15.1%로 나타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사무직 희망비율이 45.9%이고, 다음으로 전문직 희망비율이 38.0%로 높게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직 희망비율이 28.9%로 높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31.6%이었음.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의 경우 단순노무직 희망비율이 61.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42.7%로 높았음.
- 내부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직 희망비율이 31.3%로 높은 수준이었음.

라. 비경제활동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비율이 59.1%이고, 특히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은 동 비율이 79.6%, 정신장애인은 70.0%에 이르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의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이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등의 경우에,
 - 장애인 차별이 해소되거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고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나 기술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직업재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6〉 장애인이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체자폐	정신	내부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안되어	59.1	43.9	65.0	52.6	36.3	79.6	70.0	66.4
일할 필요가 없어서	4.5	5.1	2.3	2.9	0.0	3.9	8.2	4.6
원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 없어서	2.5	5.4	1.8	1.0	1.4	1.2	1.0	1.3
전공에 맞는 일자리 없어서	0.8	0.9	1.1	0.0	1.8	0.0	0.9	1.3
교육 경험 부족	0.8	1.4	0.0	0.0	0.0	0.9	1.2	0.3
차별과 선입견	2.4	3.7	0.9	2.0	2.0	1.7	3.6	0.0
이전 찾았지만 일자리 없어서	2.7	2.8	2.1	1.3	11.3	1.2	2.6	1.1
일한 경험 부족	1.3	0.6	0.7	1.6	3.6	1.4	2.6	0.0
현재 취업준비	0.9	1.2	0.0	2.3	3.4	0.0	0.5	1.0
나이 때문에	0.4	1.0	0.0	1.3	0.0	0.0	0.0	0.0
육아 또는 가사	6.6	10.8	3.2	12.4	17.1	2.0	1.8	2.8
장애이외의 건강문제로	15.1	19.6	20.1	14.0	19.5	5.5	7.5	21.2
현재 재학 중	1.1	0.6	1.8	4.0	0.8	1.9	0.0	0.0
취업 이외의 활동(진학 결혼)	0.6	0.9	0.0	3.3	1.3	0.0	0.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능력 안되어	0.6	1.6	0.0	0.0	1.7	0.0	0.0	0.0
기타	0.6	0.5	1.0	1.4	0.0	0.8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99,125	153,867	73,726	36,145	31,535	85,295	78,570	39,987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3. 정책과제

■ 기본방향

-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 장애인이 직업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청장년 취업장애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낮은 수입임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
 - 청장년 장애인 대상 교육이나 훈련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전문가의 개입과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함.
 -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되, 특히 실업률이 높은 20대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 상담 업무의 강화 및 근로지원인, 직무보조원, 재활보조기기의 지원, 그리고 취업 후 사후관리제도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간접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창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자금의 융자, 영업장소 제공,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함.

■ 직업재활서비스의 강화

- 장애인의 경우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에 따라 취업 시 애로사항(취업자), 희망 일자리(실업자),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비경제활동인구) 등이 다양하고,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욕구나 환경에 차이를 보이고 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59.1%나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취업 훈련,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의 희망일자리를 보면,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남성은 24.6%, 여성은 4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유형 및 성·연령별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함⁴⁾.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다양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4) 참고로 단순노무직에는 건설관련 단순노무직 외에도 이삿짐 운반, 택배원, 음식 배달원, 제품 포장원, 청소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주차관리원, 구두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집필자 변용찬 (복지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44-287-81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